

고령자의 노동궤적과 소득, 빈곤의 관계*

이 원 진**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노동궤적과 소득 및 빈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고령자의 생애과정에서 근로소득은 50대 중반에 정점에 이른 후 60대 후반까지 빠르게 감소하고, 시간에 따른 소득 감소는 빈곤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 고령자의 노동궤적은 주로는 근로소득의 증감, 부분적으로는 공적연금과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비근로소득의 변화를 매개로 하여 소득 및 빈곤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1. 머리말

본 연구는 고령자의 노동궤적과 소득 및 빈곤의 관계를 살펴본다. 노년기에 소득이 감소하고 빈곤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횡단적 분석 결과는 충분히 많지만, 종단적 관점에서 코호트의 노년기로의 이행에 따른 소득 및 빈곤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철희·이재원(2015)은 가구소비실태조사와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1936~51년 코호트의 장년기 이후 소득 변화를 분석한 결과, 45~54세 시점의 소득 대비 노후소득의 비율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원진(2012, 2013)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노년기로 이행할 때 소득 수준이 감소하고 소득불평등이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년기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활동 변화와 소득 변화의 관계를 살펴본다는 점, 노년기로의 이행에 따른 빈곤 변화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논의를 확장한다. 패널자료로 구축한 종단 표본을 활용하여 50~59세, 60~69세 기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1세 단위로 자세하게 분석한다는 점도 본 연구의 중요한 차별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이 글은 이승호·이원진·김수영(2020), 『고령 노동과 빈곤』 중 제4장의 내용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lwj4035@kihasa.re.kr).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승호·이원진·김수영(2020)의 제3장에서 노동계적을 분석하기 위해 구성한 표본에 소득 및 빈곤 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즉, 한국노동패널조사 4~22차 자료로부터 50세에서 59세로의 이행이 관찰되는 50대 고령자 표본, 60세에서 69세로의 이행이 관찰되는 60대 고령자 표본에 대해 각 연령 시점별 소득 및 빈곤 자료를 결합한 후 개인별 노동계적 유형 정보를 함께 사용하였다(표 1 참조).¹⁾ 단, 소득 정보에 일부 결측이 존재하므로 소수 사례가 탈락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59세/69세 시점의 2009년 통합표본 종단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작년 한 해 소득 문항을 활용하여 <표 2>와 같이 소득을 구성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세후소득을 조사하므로 본 연구의 총소득은 일반적인 개념의 가처분 소득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령은 조사시점의 연말을 기준으로 측정하였고

<표 1> 고령자 표본

50대 표본					60대 표본				
번호	유형명	사례 수(명)	가중치 비적용 비율(%)	가중치 적용 비율(%)	번호	유형명	사례 수(명)	가중치 비적용 비율(%)	가중치 적용 비율(%)
A1	정규직 유지형	225	16.39	17.67	B1	정규직 유지형	51	4.64	4.38
A2	정규직 후기 은퇴형	63	4.59	4.69	B2	비정규직 유지형	98	8.93	8.35
A3	비정규직 유지형	225	16.39	15.77	B3	비임금 유지형	236	21.49	19.06
A4	비임금 유지형	358	26.07	25.07	B4	후기 은퇴형	113	10.29	10.73
A5	불안정 후기 은퇴형	63	4.59	4.33	B5	초기 은퇴형	101	9.20	10.02
A6	중기 은퇴형	70	5.10	4.88	B6	중기 재진입형	33	3.01	2.63
A7	초기 실직후 재진입형	41	2.99	2.63	B7	후기 재진입형	83	7.56	6.67
A8	중기 재진입형	35	2.55	2.48	B8	비취업 유지형	383	34.88	38.17
A9	후기 재진입형	37	2.69	2.76					
A10	비취업 유지형	256	18.65	19.72					
계		1,373	100.00	100.00	계		1,098	100.00	10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1) 이승호·이원진·김수영(2020)의 제3장에서는 배열분석 방법으로 50대 고령자와 60대 고령자의 노동계적을 유형화하였다. 구체적인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는 본지 이번호에 함께 게재된 이승호(2021), 「고령자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 유형과 특성」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2〉 소득 구성 및 정의

	내 용	비 고
(1) 근로소득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 자영업자의 소득 등 * 중위값의 10배로 탑코딩	가구원 수 제곱근 균등화, 2019년 기준 실질가격 환산 (만 원/년)
(2) 재산소득	금융·비금융기관의 이자 및 투자소득, 배당금, 임대료, 토지 도지	
(3) 사적이전소득	사회단체 보조금, 친척·부모·자녀 등으로부터의 이전	
(4) 사회보험소득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훈연금 등	
(5) 기타 공적이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총소득	(1)+(2)+(3)+(4)+(5)	

자료: 저자 작성.

소득은 조사시점의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측정하였으므로, 이하의 분석 결과에서 t세 시점의 소득과 빈곤은 t-1세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모든 소득은 가구원 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하고 2019년 기준 실질가격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빈곤지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빈곤선을 정의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전체 인구 총소득 중위값의 30%와 50%로 정의한 상대빈곤선을 활용한다. 그런데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2차 조사에서 표본을 추가하면서 도시 가구에서 전국 가구로 모집단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4~11차 중위소득과 12~22차 중위소득 간에 시계열 단절이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는 12~22차 데이터에 대해 원표본 가구만을 대상으로 중위소득을 산출하여 빈곤선의 시계열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III. 노동계적에 따른 소득, 빈곤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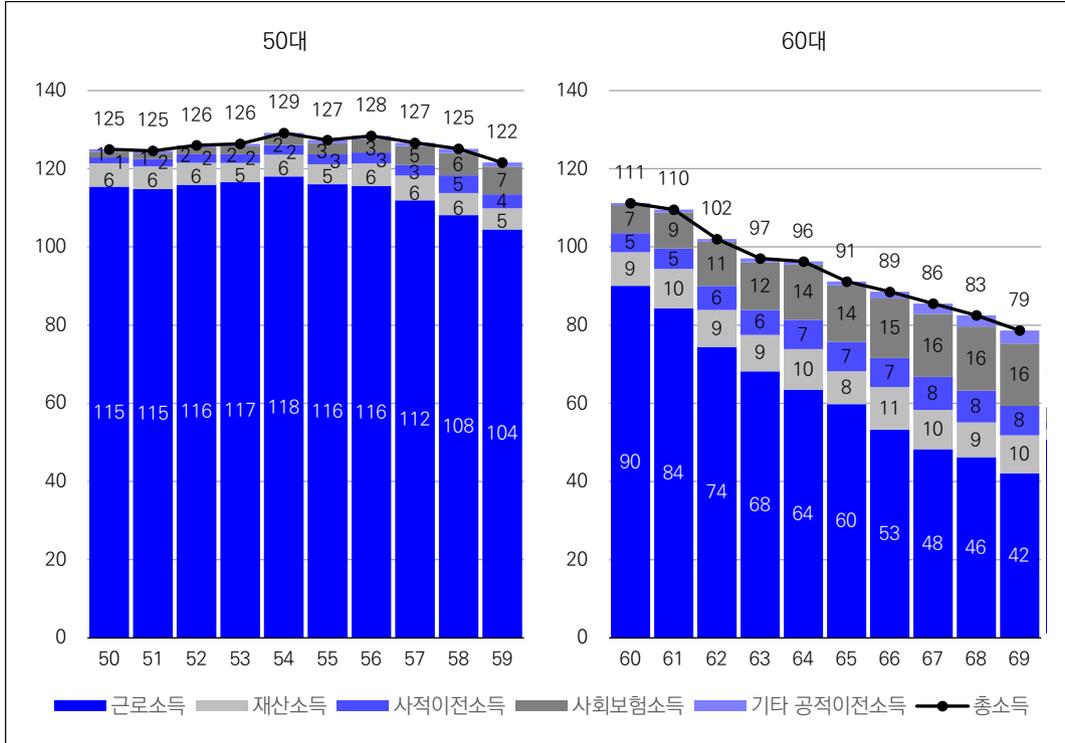
[그림 1]에는 각 시점의 소득원천을 동일 시점에 측정된 전체 인구 총소득의 중위값²⁾으로 나누는 비율의 평균을 보고하였다. 서술의 편의상 이하에서는 전체 인구 총소득 중위값 대비 소득 비율의 평균을 상대평균으로 부른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50대 중반 이후 근로소득 상대평균이 급감하여 54세 시점에 전체 인구 총소득 중위값의 118%에 이르렀던 근로소득이 69세 시점에 42%로 떨어졌다.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특히 사회보험소득이 노년기에 증가하였지만, 근로소득의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림 2]에서는 50대 노동계적 유형별 소득원천 변화를 살펴보았다. 정규직 유지형(A1)은 50~59세 기간의 대부분을 정규직 임금근로에 종사한 집단이다. 이들의 총소득 상대평균은 50세

2) 빈곤선을 산출하는 데 사용한 한국노동패널조사 원표본 중위소득을 의미한다.

[그림 1] 소득원천의 총소득 중위값 대비 비율 평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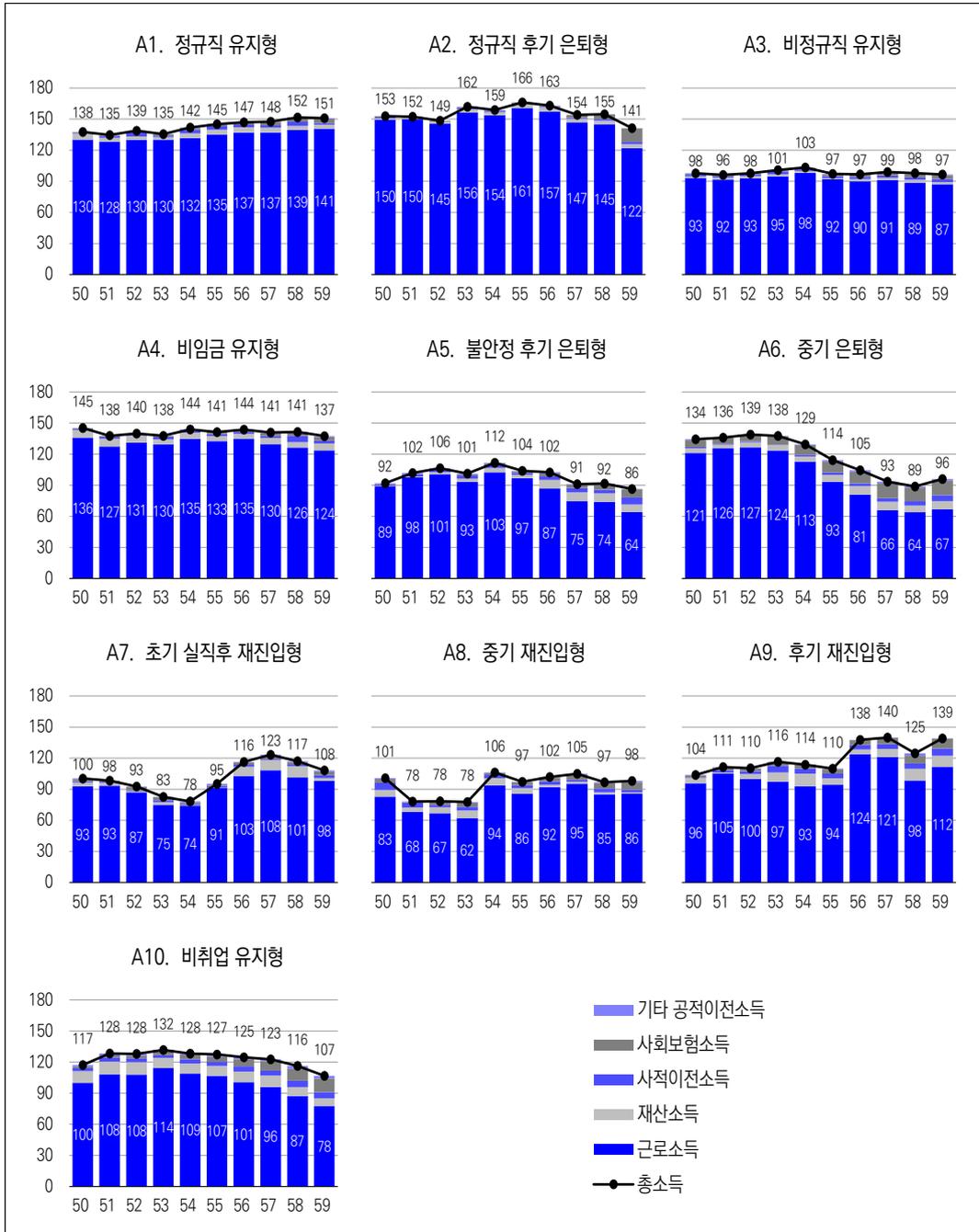
주 : 개별 소득원천을 연도별 전체 인구 총소득 중위값으로 나눈 비율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의 138%에서 59세의 151%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50대에 안정적으로 정규직에 종사한 집단의 소득 수준이 횡단적으로 높고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패턴은 정규직 임금구조의 연공급적 성격이 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정규직 후기 은퇴형(A2)은 50대 중후반까지 정규직 임금근로에 종사하다가 주로 58~59세에 퇴직한 집단이다. 전반적으로 정규직 후기 은퇴형(A2)은 50~58세 시점에 모든 노동귀적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총소득 수준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규직 후기 은퇴형(A2)의 다수가 은퇴를 경험한 59세 시점의 총소득 상대평균은 141%로 정규직 유지형(A1)의 151%보다 소폭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자리의 질이 높은 정규직에 종사하였던 고령자라 하더라도 은퇴 후 소득 수준의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유지형(A3)은 50~59세 기간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에 종사한 집단이다. 50대 고령자 중에서는 비정규직 유지형(A3)의 소득 수준이 낮은 편으로, 비정규직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적 지위를 시사한다. 50~59세 기간의 대부분을 자영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로 보낸 비임금 유지형(A4)은 정규직 유지형(A1)에 못지않은 소득 수준을 보여준다. 연령 시점별로 다소 변동이

[그림 2] 50대 노동계적 유형별 소득원천의 총소득 중위값 대비 비율 평균

(단위 : %)



주 : 노동계적 유형별 개별 소득원천을 연도별 전체 인구 총소득 중위값으로 나눈 비율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존재하지만, 비임금 유지형(A4)의 총소득 상대평균은 137~145%로 나타났다. 이들은 50대 후반에 근로소득이 다소 감소하지만, 재산소득 상대평균이 대체로 정규직 유지형(A1), 정규직 후기 은퇴형(A2), 비정규직 유지형(A3)보다 높게 나타났다.

불안정 후기 은퇴형(A5)은 50대 중반까지 주로 비임금근로와 비정규직 임금근로에 종사하다가 50대 후반에 은퇴를 경험한 집단이다. 불안정 후기 은퇴형(A5)의 59세 시점 총소득 상대평균은 모든 노동궤적 유형 중에서 가장 작았는데, 이는 불안정한 일자리로부터의 은퇴를 경험한 50대 후반 고령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50대 초중반까지 노동시장에 참여하다가 50대 중반 이후 은퇴를 경험한 중기 은퇴형(A6)은 50대에 근로소득과 총소득이 가장 크게 감소한 집단으로, 경제활동의 중단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는 패턴을 가장 강하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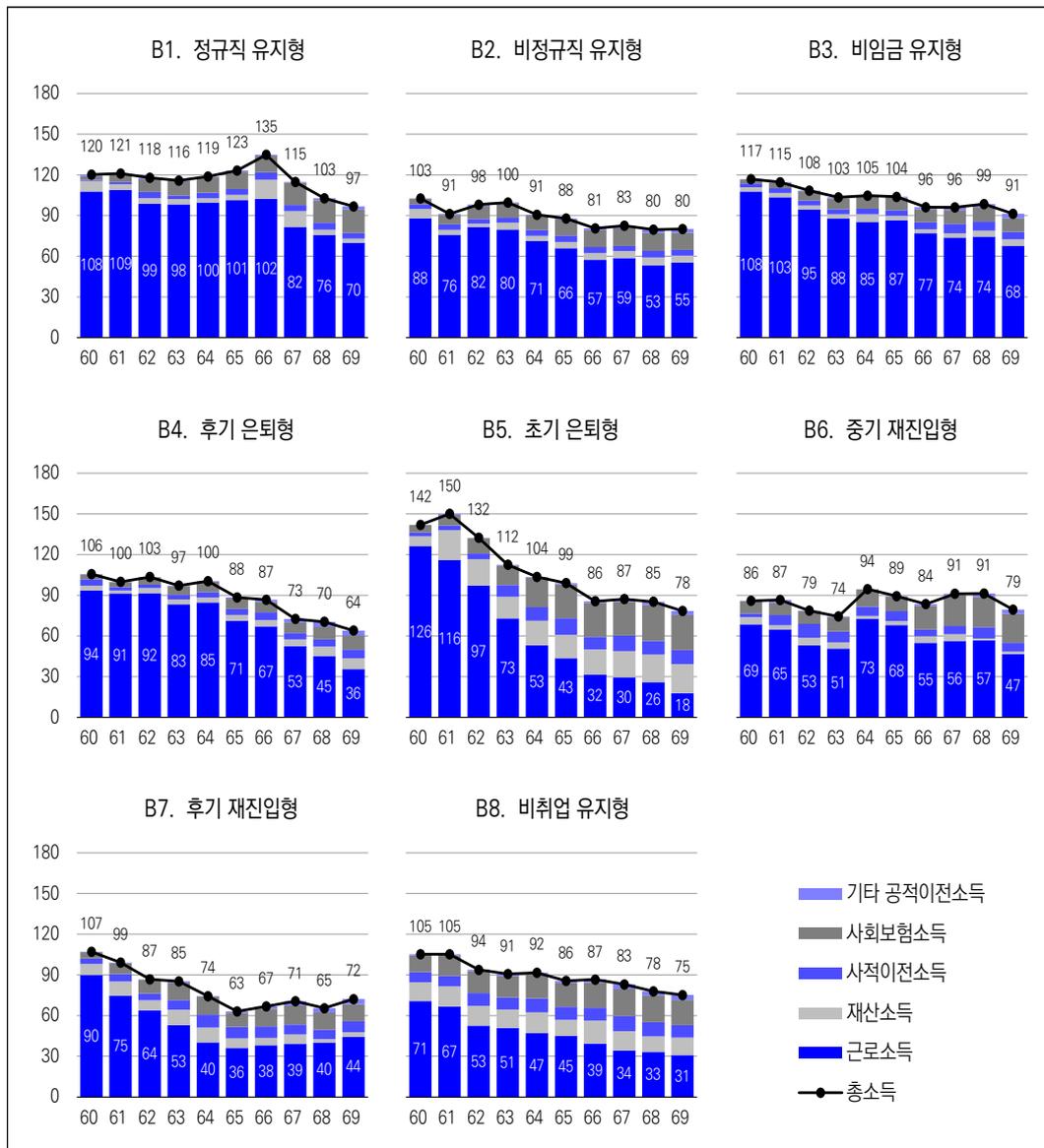
초기 실직후 재진입형(A7)은 50대 초반에 실직을 경험한 후 주로 비정규직 임금근로로 노동시장에 복귀한 집단이다. 이들의 근로소득 상대평균이 50대 중후반에 상당히 증가하였다는 분석 결과는 불안정한 일자리라 하더라도 고령자의 재취업이 소득 수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기 재진입형(A8)은 50대 초반에 경제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지만 50대 중반 이후 주로 비임금근로와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한 집단이다. 중기 재진입형(A8)은 50대 초반에 대부분 비취업 상태였고 50대 중반 재취업 전까지 경력단절 기간이 길었거나 신규 취업한 여성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중기 재진입형(A8)의 총소득 상대평균은 대체로 51~53세의 78%에서 54~59세의 97~106%로 증가하였다. 후기 재진입형(A9)은 50~54세 기간에 경제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으나 50대 중반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집단이다. 이들은 경제활동참여율이 매우 낮았던 50~55세 시점에도 93~105%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근로소득 상대평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후기 재진입형(A9)에 속한 여성 고령자가 50대 중반까지 주로 배우자나 동거하는 자녀의 근로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비취업 유지형(A10)은 50~59세 기간의 대부분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이다. 이들은 주로 배우자나 동거 자녀의 경제활동 덕분에 50대 중반까지 100%를 넘는 수준의 근로소득 상대평균을 갖지만, 시간에 따라 배우자가 은퇴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소득 상대평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3]에서는 60대 고령자의 노동궤적 유형별 소득원천 변화를 분석하였다. 정규직 유지형(B1)은 60~69세 기간의 대부분을 정규직 임금근로에 종사하였지만, 60대 후반에 부분적으로 비정규직과 비취업 상태로의 이행을 경험한 집단이다. 주로 근로소득의 감소로 인해 총소득이 60대 후반에 감소하였지만, 69세 시점의 총소득 상대평균이 97%로 여전히 모든 노동궤적 유형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노년기로 이행할 때 질 좋은 일자리에 가능한 한 오래 머무르는 것이 소득 수준의 하락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유지형(B2)

은 60~69세 기간 동안 대체로 비정규직 임금근로 일자리를 유지한 집단이지만, 60대 초반에는 소수의 정규직을 포함한다. 이들의 총소득 상대평균은 60세의 103%에서 69세의 80%로 감소하였지만, 66~69세 기간에는 총소득 상대평균이 80~83%로 대체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 60대

[그림 3] 60대 노동계적 유형별 소득원천의 총소득 중위값 대비 비율 평균

(단위 : %)



주 : 노동계적 유형별 개별 소득원천을 연도별 전체 인구 총소득 중위값으로 나눈 비율의 평균을 의미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후반에는 소득 수준이 하락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60대 후반 비정규직 일자리의 유지가 추가적인 소득 수준의 하락을 방지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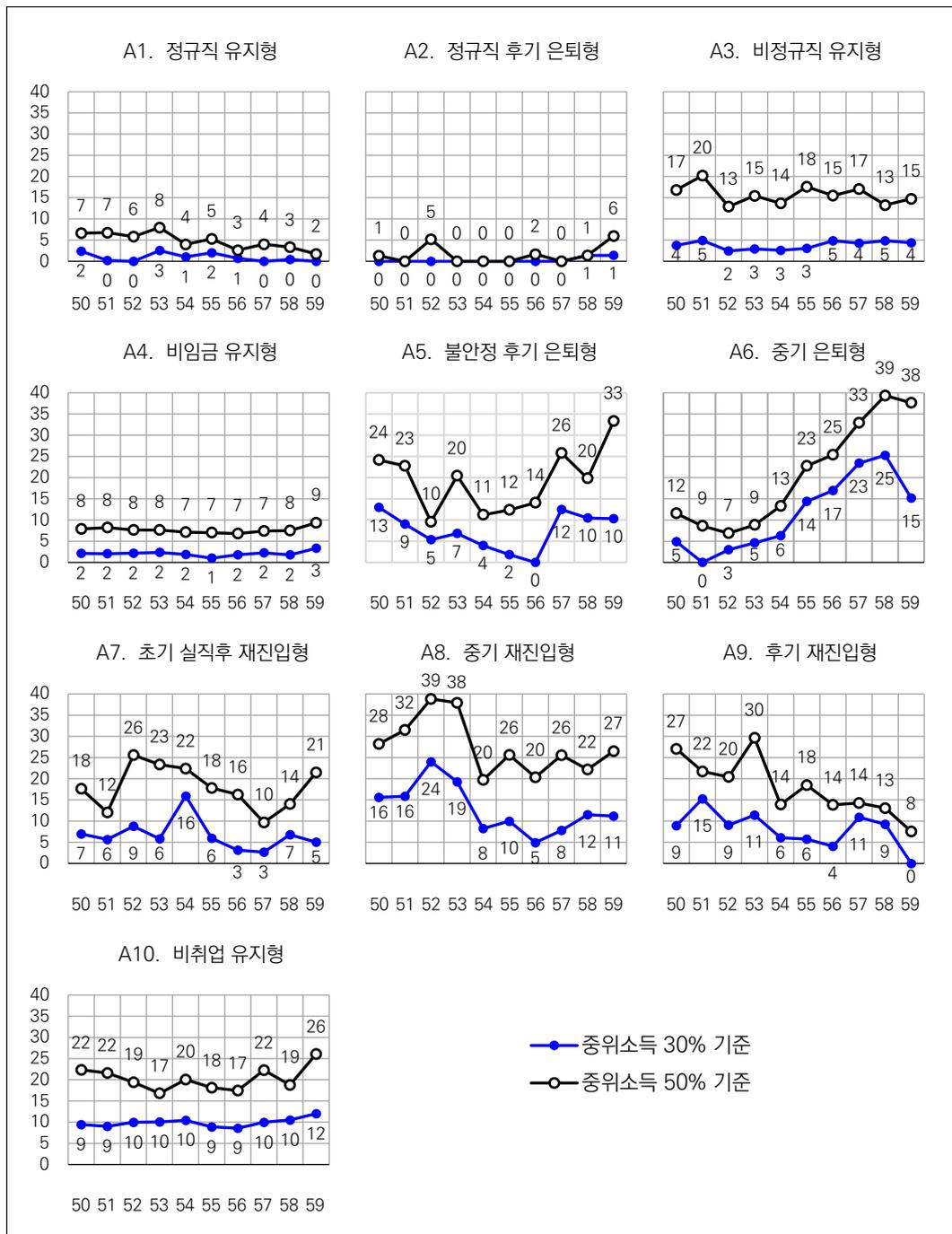
비임금 유지형(B3)은 60~69세 기간의 대부분을 비임금근로에 종사한 집단이다. 이들의 소득 수준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지만, 대체로 다른 노동계적 유형에 비해서는 60대 후반의 소득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비임금 유지형(B3)의 소득 수준과 구성은 대체로 정규직 유지형(B1)과 비슷하였는데, 단 비임금 유지형(B3)의 사회보험소득 수준은 정규직 유지형(B1)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후기 은퇴형(B4)은 주로 비임금근로와 비정규직 임금근로에 종사하다가 60대 중후반에 은퇴를 경험한 집단이다. 이들의 근로소득 상대평균은 60세의 94%에서 69세의 36%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60대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이 소득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초기 은퇴형(B5)은 60대 초반에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경험한 집단으로, 모든 노동계적 유형 중에서 시간에 따라 근로소득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초기 은퇴형(B5)은 이처럼 근로소득이 매우 급격하게 감소한 대신 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 특히 사회보험소득이 시간에 따라 증가한 결과 69세 시점의 근로소득 상대평균은 18%에 불과하였지만 총소득 상대평균은 78%로 유지할 수 있었다.

중기 재진입형(B6)은 주로 60대 중반에 비취업 상태에서 자영업이나 비정규직 일자리로의 이행을 경험한 집단이다. 중기 재진입형(B6)의 총소득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였던 60대 초반에는 60대 고령자의 평균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60대 중반 이후에는 주로 근로소득과 사회보험소득이 증가한 덕분에 60대 고령자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의 총소득을 갖게 되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자가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과 노동시장 재진입이 60대 중반 이후 고령자의 추가적인 소득 수준 하락을 막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후기 재진입형(B7)은 60대 중반까지 대부분 비취업 상태로 이행한 후 60대 후반에 주로 비정규직 일자리로, 부분적으로 자영업 일자리로 재취업한 집단이다. 이들은 비취업 상태로 이행한 60대 중반까지 근로소득 상대평균이 빠르게 감소하였지만, 노동시장 재진입이 이루어지면서 69세까지 다시 증가하였다. 중기 재진입형(B6)과 마찬가지로 후기 재진입형(B7)의 시간에 따른 소득 변화는 60대 중반 이후 재취업이 소득 수준의 하락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비취업 유지형(B8)은 60대 기간의 대부분을 비취업 상태에 머무른 집단이다. 비취업 유지형(B8)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대체로 60대 고령자의 평균을 넘는 수준의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사회보험소득을 갖는다.

[그림 4]와 [그림 5]에서는 50대와 60대 고령자의 노동계적 유형별 빈곤율 변화를 살펴보았다. 빈곤율은 총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개인의 비율이다. [그림 4]에서 50대 고령자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총소득의 수준 및 변화가 빈곤율의 수준 및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규직 유지형(A1)은 50대 전반에 걸쳐 근로소득 및 총소득이 조금씩 증가

[그림 4] 50대 노동계적 유형별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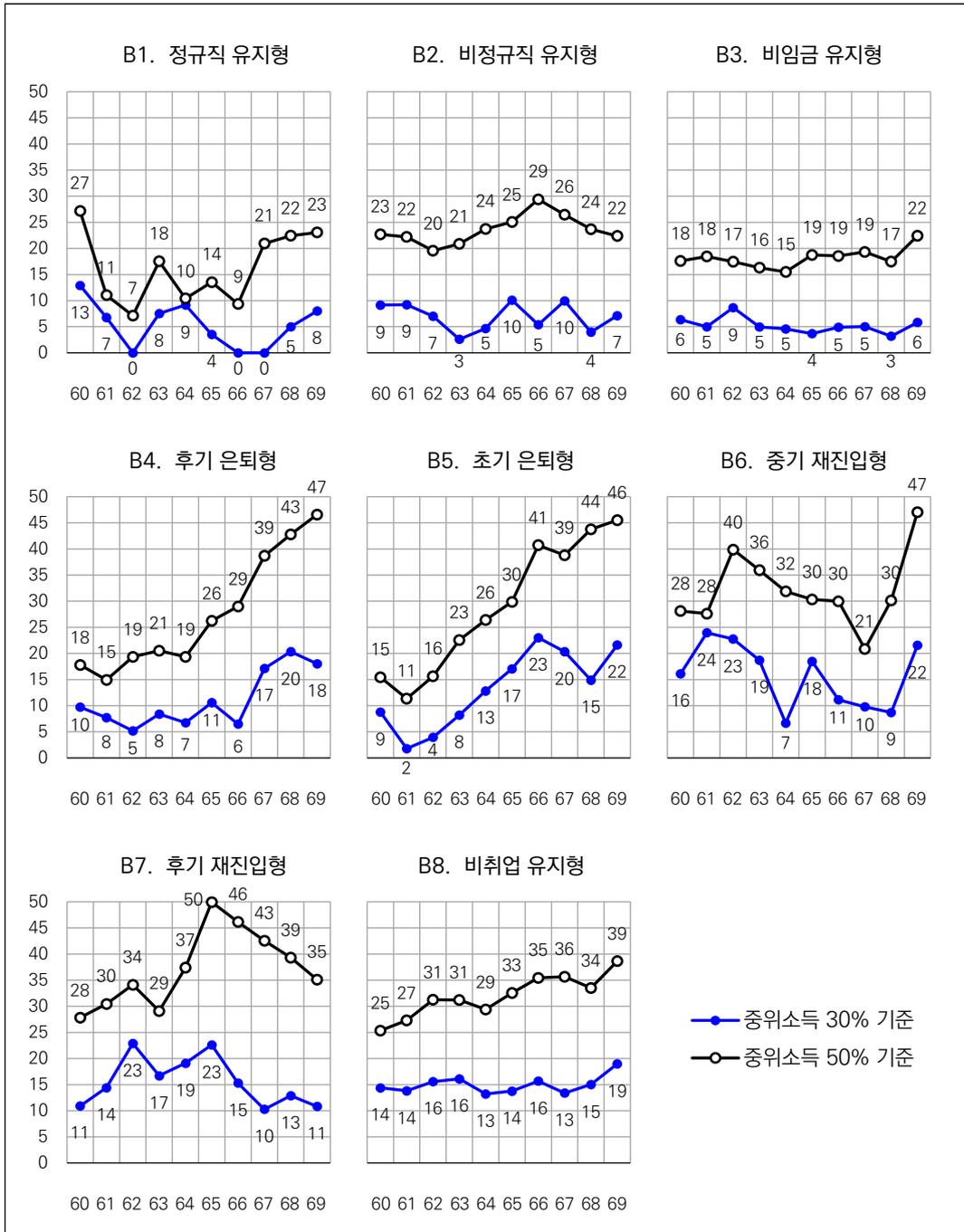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그림 5] 60대 노동계적 유형별 빈곤율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함에 따라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이 낮아졌다. 정규직 후기 은퇴형(A2)은 50대 전반에 걸쳐 대체로 상당히 낮은 빈곤율을 나타냈다. 자영업에 꾸준히 종사한 비임금 유지형(A4) 역시 낮은 수준의 빈곤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다. 한편 비정규직 유지형(A3)의 빈곤율은 평균적인 50대 고령자와 대체로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 후기 은퇴형(A5)과 중기 은퇴형(A6)과 같이 50대에 은퇴를 경험한 집단은 50대 중후반에 빈곤율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주로 50대 후반에 은퇴가 집중된 불안정 후기 은퇴형(A5)은 주로 57세부터 빈곤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중기 은퇴형(A6)은 모든 노동계적 유형 중에서 50대에 빈곤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집단으로, 이들의 경험은 50대의 이른 노동시장 이탈이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초기 실직후 재진입형(A7), 중기 재진입형(A8), 후기 재진입형(A9)과 같이 50대에 재취업을 경험한 집단은 대체로 재취업 시점에 빈곤율이 감소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한편으로 가난한 고령자가 생계를 위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을,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장 재진입이 시간에 따른 빈곤율의 상승을 막거나 빈곤율을 하락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비취업 유지형(A10)은 대체로 50대 고령자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빈곤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림 5]에서 60대 고령자의 노동계적 유형별 빈곤율 변화를 살펴보자. 정규직 유지형(B1)은 60대 중반까지 빈곤율 변동이 다소 크게 나타났지만, 대체로 근로소득과 총소득이 감소한 67~69세 시점에 빈곤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유지형(B2)은 66세 시점의 일시적인 증가를 제외하면 대체로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이 20%대 초중반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 유지형(B3)의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은 60세부터 68세까지 대체로 15~19% 수준을 유지하다가 69세 시점에 22%로 다소 증가하였다. 정규직 유지형(B1), 비정규직 유지형(B2), 비임금 유지형(B3)의 69세 시점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은 22~23%로, 다른 노동계적 유형에 비해 훨씬 낮았다. 이는 60대 후반에는 일자리의 질보다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험 자체가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후기 은퇴형(B4), 초기 은퇴형(B5)과 같이 60대에 비취업 상태로 이행한 집단은 빈곤율의 급격한 증가를 경험하였다. 초기 은퇴형(B5)에 비해 상대적으로 은퇴 시점이 늦은 후기 은퇴형(B4)의 경우 빈곤율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조금 더 늦긴 하지만, 대체로 두 유형(B4/B5)은 60세부터 69세까지 빈곤율이 비슷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고령자의 은퇴가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중기 재진입형(B6)과 후기 재진입형(B7)은 노동시장 재진입 시기에 빈곤율이 감소하였다. 특히 후기 재진입형(B7)은 65세 시점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이 50%로 모든 노동계적 유형의 모든 연령 시점 중에서 가장 높았는데, 60대 후반에 재취업이 이루어지면서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율이 빠르게 감소하였다. 이는 가난한 고령자의 재취업이 빈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단, 중기 재진입형(B6)의 경우 68~69세 시점에 빈곤율이 다시 급증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중기 재진입형(B6)의 일부가 60대 후반에 비취업 상태로 이행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비취업 유지형(B8)의 빈곤율은 대체로 60대 고령자의 평균적인 빈곤율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I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노동궤적과 소득 및 빈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고령자의 생애과정에서 근로소득은 50대 중반 정점에 이른 후 60대 후반까지 빠르게 감소한다. 부분적으로 50대에, 주로 60대에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특히 공적연금 중심의 공적이전소득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지만, 비근로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근로소득의 감소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고령자의 총소득은 50대 중반 이후 60대 후반까지 크게 감소한다. 이와 같은 소득 수준의 하락은 빈곤 위험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고령자의 노동궤적은 주로 근로소득의 증감을, 부분적으로 공적연금과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비근로소득의 변화를 매개로 하여 소득 및 빈곤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년기로 이행할 때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소득 수준의 하락과 빈곤율의 상승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50대와 60대에 정규직이나 자영업 일자리를 유지하는 고령자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고 빈곤율이 낮으며, 시간에 따라 소득 수준이 하락하고 빈곤율이 증가하는 추이도 비교적 약하게 나타난다. 한편 주로 정규직·자영업 일자리와 비정규직 일자리 간 격차로 드러나는 일자리의 질은 고령자의 소득과 빈곤에 양면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정규직 일자리를 유지하는 고령자는 정규직·자영업 일자리를 유지하는 고령자에 비해 횡단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빈곤율이 높다. 이러한 관계는 50대에는 상당히 강하게, 60대에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일자리라 할지라도 50대와 60대에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로 이행할 때 소득 수준이 하락하고 빈곤율이 상승하는 추이를 상당히 억제한다.

둘째, 50대와 60대의 은퇴는 노년기로 이행할 때 소득 수준을 하락시키고 빈곤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령대와 은퇴 시점을 막론하고 노년기로의 이행 과정에서 은퇴를 경험한 노동궤적 유형은 어김없이 소득 수준의 하락과 빈곤율의 상승을 경험한다. 현재 한국의 공적·사적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은퇴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를 충분히 대체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의 은퇴는 시간에 따른 소득 감소 및 빈곤 증가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셋째, 소수의 고령자는 50대와 60대에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과 재진입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때 소득 감소와 빈곤 증가를 경험하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소득 증가와 빈곤 감소를 경험한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완전은 퇴가 빈곤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불안정한 형태의 이행 유형은 안정적인 정년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노동시장, 충분한 공적 노후소득을 제공해 주지 않는 복지국가, 점차 악화되어 가는 가족 부양체계의 조합이 만들어낸 불가피한 선택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KLI**

[참고문헌]

- 이승호 · 이원진 · 김수영(2020), 『고령 노동과 빈곤』, 한국노동연구원.
- 이원진(2012), 「노년기로의 이행에 따른 소득불평등 변화와 소득이동성」, 『한국사회복지학』, 64(2), pp.185~212.
- _____(2013), 「노년기 소득불평등 증가의 원인: 누적적 혜택/불리 모형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사회학』, 47(5), pp.241~275.
- 이철희 · 이재원(2015), 「노후소득 수준의 장기적 변화: 코호트 분석 결과」, 『한국경제연구』, 33(3), pp.5~34.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